

문화방송노보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본부 13기 집행부 오늘 출범!



오동운 본부장 · 고차원 수석부분부장 95.4% 지지로 당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3기 집행부가 오늘(8일) 출범식을 갖고 2년 임기의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될 출범식은 13기 집행부 구성원들과 전국 조합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자리 가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부재자 투표와 3월 4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전국 지부에서

실시된 본투표 결과, 단독 출마한 오동운·고차원 조합원이 각각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본부장과 수석부분부장에 당선됐다. 두 조합원은 찬성률 95.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6일 저녁 당선이 확정된 후, 오동운 본부장 당선자는 “지난 2년간 12기 집행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3기 집행부는 조합이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조합

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투표는 서울 상암동 MBC사옥 및 전국 지부 현장 투표소, 그리고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실시되었고, 총투표권자 1,959명 중 1,622명이 참여해 82.8%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13대 임원 선거 결과 공고



문화방송본부 규약 제48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본부 임원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당선자

- 본 부 장 : 오동운 조합원(서울지부)
- 수석부분부장 : 고차원 조합원(전주지부)

2. 투표·개표 결과

- 총조합원 : 1,982명
- 투표권자 : 1,959명
- 투표자(투표율) : 1,622명(82.8%)
- 찬성자(찬성률) : 1,547명(95.4%)

2019년 3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선거관리위원회

12기 집행부 이임 및 13기 출범식

오늘(8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상암동 MBC사옥
골든마우스홀

자랑스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취임사

우리의 목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동운
본부장

참으로 길었습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시민들의 격려와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긴 시간 MBC를 망치려는 자들에 맞서 버티며 저항하고, 피해를 감수하며 싸웠던 조합과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조합원들이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역임을 함께 자랑스러워 합시다.

MBC를 망친 자들은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악행이 낱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악행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투쟁의 대상과 성취할 목표가 단순했고,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투쟁의 시기, 순식간에 달라진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들의 기준은 우리에게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되찾고자 했던 공영방송 MBC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MBC 재건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시 조합의 첫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996년 10월 10일, 전국의 MBC 조합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의 창립 목표는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의 실현을 통한 방송민주화의 완성임을 선언한다” -1996년, <MBC단일노조 창립선언문>

그 이후 MBC의 언론노동자들은 한순간도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공정방송과 방송독립의 실현’은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다시 전국 2천 조합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믿고 조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취임사

2천 조합원의 뜻을 살피고
시대정신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차원
수석부분부장

2년 전 우리는 운명을 건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MBC만의 운명이 아니라 공영방송과 대한민국 언론의 운명이 달린 총파업이었습니다. 당시 1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친 70여일의 투쟁 끝에 우리는 총파업을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MBC,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언론을 구해내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파업을 전후해 우리는 촛불시민과 촛불혁명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언론, 진실을 지키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현업 복귀 이후 서울과 지역의 조합원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획과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 맙시다.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운명을 건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었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MBC의 힘은 우수한 인력과 촘촘한 전국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MBC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전국 네트워크 부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축적해온 전국 네트워크는 그 어느 언론사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는 전

국 방송사인 MBC의 정체성과도 깊숙이 이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이런 자산이 평가절하되지 않고, MBC의 새로운 역할과 활로를 찾아가는데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MBC 경영진은 춘천 MBC 김동섭 사장의 거취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3대 집행부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칭찬만 바라지 않겠습니다. 비난도 좋고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안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바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2천 조합원들이 시청자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방송을 만들 듯, 저희는 2천 조합원만 바라보겠습니다. 2천 조합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MBC와 노동조합이 요구받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즐겨쓰는 말입니다. 행동하는 노동조합, 그 행동에 진심을 담아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대 집행부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김연국 위원장과 도건협 수석부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임사

우리는 MBC에서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세대입니다



김연국
12기 본부장

긴 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공정방송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추락한 언론자유, 폐허가 된 공영방송 MBC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의 품으로 되찾은 MBC의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청산과 재건의 길은 우리가 견뎌낸 암흑시대 10년만큼이나 험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지상파의 위상은 하락했습니다. 기성 언론은 불신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MBC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MBC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언론인가?

1987년 6월 MBC는 독재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고 광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MBC의 젊은 구성원들은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실과 맞서 싸웠습니다.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폭발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MBC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났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의 DNA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복원시켰습니다. 여기

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더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방송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터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MBC만의 저널리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감각의 프로그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다시 폭발시킬 때입니다.

우리는 MBC의 역사를 바꾼 강력하고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DNA를 깨우고 새로움을 더해가며,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방송사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2년이었습니다. 2천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용기와 신뢰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도건협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열정을 바쳐 헌신해준 12기 집행부 한 분 한 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행부가 남긴 무거운 과제들을 책임감으로 기꺼이 맡아 주신 오동운 위원장, 고차원 수석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2년 이후 7년만에 현업으로 돌아옵니다. 자랑스러운 MBC본부의 조합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임사

조합원 여러분은 MBC 암흑시대를 끝낸 주인공입니다



도건협
12기 수석부본부장

먼저 전국에 계신 2천 조합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MBC의 오랜 암흑시대를 끝낸 주인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는 데는 이르지 못했지만 더디더라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보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적폐 시절 큰 실망을 줬던 만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들도 우리의 노력을 알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은 암흑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MBC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랜 무단협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방송 체도와 조합원 권리를 강화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이유인 공정방송을 지키는 데 든

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지금 여전히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춘천MBC에서는 현재, 지난 1년간 노사 갈등의 진원지였던 사장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노사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MBC의 정상화를 위해 엄정한 조사와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때 동료 조합원이었던 김동섭 춘천 사장께 말씀 드립니다. 용퇴하십시오.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춘천MBC와 MBC 네트워크 전체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 저는 일터로 돌아갑니다. 작은 힘이나마 MBC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보태겠습니다. 고락을 함께 했던 김연국 본부장과 집행부들, 지부장님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어려운 짐을 맡아주신 오동운 위원장과 고차원 수석부위원장, 신임 집행부와 지부장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신임 지부장 소개



강원영동 **오세강**
01년 입사 / CG

많은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원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조합 구성원 마음 또한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선윤식**
04년 입사 / 기술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마음 잘 간직했다가, 내려올 때 가벼워지겠습니다. 축하는 그날 받겠습니다.



대구 **이길로**
00년 입사 / PD

모두들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적 환경의 변화는 스스로가 움직여 살아남아야만 하는 질박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MEC, 지역과 서울 모두의 과제입니다.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야겠습니다. 오만과 독선 또한 경계하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는 길에 당연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대전 **김훈**
94년 입사 / 카메라기자

조합원 여러분, 저는 노조가 지향해야 할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하겠습니다. 분열과 대립 같은 낡은 방식을 벗어나 소통과 공감,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앞장하겠습니다. 이제 노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받준다는 믿음, 나의 어려움 걱정해준다는 믿음, 노조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믿음을 심어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한 표 한 표에 담긴 그 무거운 명령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목포 **조성택**
03년 입사 / 영상제작부

목포MBC 노동조합은 작지만 강한 조직입니다. 전통을 받들어 작지만 강하고 끈끈하게 연대하겠습니다. 언론인이 언론인답게, 방송인이 방송인답게,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어차피 감내할 게 많은 환경이라면 그 무엇보다 명분을, 조합원을 최우선에 두는 13기 목포지부를 꾸려가겠습니다.



부산 **이두원**
03년 입사 / 기자

노조의 힘으로 부산MBC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견고히 이어나감과 동시에, 정치적 탄압과 뉴미디어 등장 등으로 추락한 회사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경영을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노조의 강력한 단일대오를 유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동 **배경탁**
03년 입사 / 영상팀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인일한 위기의식으로 지역 언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당면 과제들의 해결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오늘에 임한다면 어려운 난관을 떨쳐 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지역 방송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노사의 상생과 조합원의 인격적 권리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여수 **이동신**
00년 입사 / PD

치열했던 2017년 파업이 새겨놓은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울곧게 지키기 열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지부 조합원들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고 속고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만드는' 13기 여수지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원주 **박영현**
04년 입사 / 영상부문

또 다른 긴장과 설렘이 시작됐습니다. MBC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을 만드는 길!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투쟁하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 **박찬익**
04년 입사 / 보도 취재

많은 조합원들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파업의 승리로 자존감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파업 이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소통, 발로 뛰는 소통, 속이 시원해지는 소통을 통해 빈틈없는 공영방송,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역이 하나가 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는 MBC가 되도록 노조가 힘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 **김영석**
01년 입사 / 방송기술

그동안의 조합활동을 돌이켜보며 초심을 생각합니다. 미려하나마 지부장으로 세워주신 조합원들이 앞으로 바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노동조합이 가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힘차게 걸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슴에 담고, 앞으로 2년간의 활동을 즐겁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노승찬**
07년 입사 / PD

봄은 왔지만 미세먼지가 눈앞을 흐립니다. 시야가 흐려지니 정신도 몽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춘천MBC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하려고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항 **조현근**
95년 입사 / 영상부문

노동조합의 좋은 전통은 살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과감히 결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소원했던 동료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관리를 통해 하나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뜨거운, 똑똑함보다는 우직함으로 한발자국씩 나아가겠습니다.

신임 서울지부 부위원장장 소개



경영부문 **황윤정**
00년 입사

'산호와 진주' 처럼 간절한 소망으로 품어 왔던 'MBC의 봄을 맞이하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땅고르기를 마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인 듯 합니다. 우리의 봄을 위해 조합은 더 섬세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넘치는 활기와 따스한 온기를 더하여, 한마음으로 또 긴 호흡으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표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벅찬 희망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술부문 **김선국**
01년 입사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시켜주신 기술부문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은 조합원과 집행부를 잇는 가교(다리 놓기)입니다. 어느 일방이 아닌 양쪽의 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단의 힘을 믿고 많은 의견과 많은 질책을 듣겠습니다.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도부문 **정우영**
01년 입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지에 기반하고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변한다."
노동조합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저의 부족함 탓에 그 첫발이 많이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을 등에 업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배워가며 일하겠습니다. 조합이 당연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길에 보도부문조합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내고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영상미술부문 **오규택**
01년 입사

나는 왜 지금까지 본부노조의 조합원으로 방송일을 하였으며, 파업의 시간들을 참고 견뎠으며, 부끄럽지만 이제 조합에 봉사하려 하는가?
분명 조합이 있기에 누렸던 고마운 그것이 있었고, 고마운 그것에 이제 보답하려는 마음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누렸으면 하는 그것은 간단명료하게 '건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MEC가 건강한 조직으로 계속 남아있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성제작부문 **최행호**
04년 입사

콘텐츠 전쟁의 선두에서 싸우시는 편제조합원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임해야 할 자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모로 미스캐스팅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간 선배님들께 보고 배운 게 있어 폭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동료, 후배님들께 귀 기울이고 대화하다 보면 중간은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면 어쩌면 잘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추후 사례하겠습니다.

신임 집행부 소개



한동수
사무처장
00년 입사/ 보도



서동환
정책국장
08년 입사/ 경영



김선희
교섭쟁의국장
00년 입사/ 기술



이승준
홍보국장
편제민실위 간사
03년 입사/ 편제



정길상
복지사업국장
06년 입사 / 영미



전종환
교육문화국장
05년 입사/ 편제



정성오
조직국장
00년 입사/ 경남지부



김보슬
성평등위원장
03년 입사/ 편제

2018년 올해의 좋은 보도 · 프로그램 선정!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2018년 전국 회의에서 특종이나 완성도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시선에서 가치있는 보도·프로그램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좋은 보도·프로그램 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노동, 인권, 환경,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대변, 공영방송과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삼아 '2018년 올해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좋은 보도 후보작은 총 21개, 좋은 프로그램 후보작은 총 14개였으며, 전국 지부 만일위 간사들의 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좋은 보도

<서울> 삼성 노조 파괴 공작 연속보도

서울지부 이정신 곽동건 정인학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조합원 등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을 추적하고 당시 정부 역시 공범이었음을 고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욱 전 노동부 차관을 산에서 쫓아가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스트레이트>의 특징을

보여준 장면이다. 심사위원들은 “경제 권력인 삼성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언론인들의 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으며 “무노조 경영 신화가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쌓아올린 아픔이었다는 점을 잘 구성해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수상소감 곽동건 조합원

2014년 수습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필사적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도심 한복판에선 ‘노조의 승리’를 바라던 한 서비스 기사의 시신이 무참히 탈취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농성장과 경찰서만 매번 오갈 뿐이었고, 사실상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가 그룹 차원의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졌고, 이를 노동부와 경찰이 비호했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작년해야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다시 취재를 시작하면서 어찌면 2014년의 부채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어렵게 버텨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그들을 애써 외면해왔다는 또다른 부채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기사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헛갈릴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빚진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너무 자주 맞닥뜨리는 고비마다 늘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준 <스트레이트> 팀 선배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역> 천주교 대구대교구 비리 연속 보도

대구지부 심병철 한보욱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이어진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리의혹 관련 보도는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 의혹에서 시작해 비자금 조성과 불법 금융, 조환길 대주교의 횡령 의혹까지 확대됐다. 특히 심병철 조합원은 안식년 기간 중에도 취재를 계속 이어가며 고참기자로서 모범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흔들릴 수 있는 내부 고발자를 설득해 가며 접근이 쉽지 않은 종교단체의 비리를 파헤쳐 지역 공영방송 취재의 정석을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했다.

수상소감 심병철 조합원

“천주교 대구대교구 비리를 취재한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뒤. 너만 손해야.” 친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취재 계획을 듣고 내뱉은 첫말이었다. 대구대교구는 신자만 50만 명이고 유력 언론사와 대학교 등 270여 개 공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왔던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도 지역 언론은 침묵했다. 부끄러웠고 참담했다. 우리들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최소한 단 한명이라도 희망원 안에서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마음을 짓누르는 부채의식에서 취재를 시작된 지 약 1년 만인 2017년 12월, 마침내 스모킹 건이 나왔다. 대구교구장인 조환길 대주교의 비리의혹을 폭로하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이다. 대구대교구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기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끝내는 2018년 2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2018년 4월, 법원은 문건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고 취

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마침내 대구대교구의 비리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 후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로부터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하다는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다. 천주교 개혁연대는 쇠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한국 천주교 쇠신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대교구는 아직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대구대교구가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성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좋은 보도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마냥 즐거워 할 수는 없다.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담하지는 않겠다. 세월이 지나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만이 사는 세상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 기사를 진실로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는 신발 끈을 매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상〉 고 김용균 씨 사망 연속보도

서울지부 김장훈 남재현 고은상 배주환 박진주 김수근
대전지부 이승섭 조명아 김광연 김태욱 김준영 장우창



2018년 12월 11일 <뉴스데스크>의 첫 기사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 24살 청년의 죽음이었다. 과거의 MBC라면 관행적으로 취재하고 단신 처리만 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대전과 서울 조합원들이 장례식장을 찾아가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만나고 당시 상황을 파헤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를 공론화시켰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MBC 네트워크가 뜻을 모으면 이렇게 힘있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상소감 조명아 조합원

“저는 노동 기사를 쓸 줄 모릅니다.” 지난 2017년 파업 출정식 때, 막내 조합원인 제가 했던 발언 첫마디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입사해 2년 동안 제대로 된 노동 기사를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선배들과 함께 이런 값진 상을 받게 돼 참 기쁩니다. 유성기업을 비롯해 파업 기간 중 만난 노동자들은 MBC가 노동 현실을 외면한 사이 참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저에게 반성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

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발전소 하청업체 입사 3개월 차의 김용균 씨는 안전교육도 받지 못 하고 헤드랜턴 같은 기본 장비도 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컨베이어벨트는 직원들의 수십 차례 개선 요청에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되는 등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라는 이름 아래 서울과 대전 기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사를 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많이 가르쳐주신 서울과 대전의 선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

〈서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서울지부 이모현 김재영 황순규 장호기 소형준



지난 11월 하순 방영된 <페이크>는 새로운 형태의 교양프로그램으로 ‘미친 집값의 거짓말들’, ‘조덕제 사건! 배우 반민정의 고백’ 등을 다루며 가짜뉴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심각성

을 조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문제가 된 가짜 뉴스에 대항하고, 언론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한 좋은 시도”라고 평가하고 “검색창과 화상통화 등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수상소감 황순규 조합원

2018년 MBC의 슬로건은 “새로움을 탐험하자”였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새로움’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시사프로그램에 벗어나보자!’ 시사프로그램 MC라고 하면 정장을 입고 일방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는 콘셉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검색을 통해 진실을 찾는 형식을 고민하다 보니 스마트하고 젊은 김지훈 배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김지훈 씨를 MC로 택한 건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가짜정보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톡으로 유통되는 가짜정보들을 규제하니 마니 논란이 있지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쉽게 접하는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다뤘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정규화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역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시사기획 소수의견

경남지부 신동식 · 전우석 · 김현지 · 양정현



<소수의견>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되며 중앙언론에서 노출빈도가 낮았던 지역의 수도권검찰원, CJ택배 노동자, STX 노동자 등을 집중 취재하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지역 시청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의 약자·

소수자들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지역 공영방송의 책무에 충실하다.”고 평가했고, 세련된 스튜디오 진행과 VCR 구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수상소감 양정현 조합원

지난 몇 개월 간 <소수의견>을 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 6조 5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되새겨 있었고, 조직되지 못한 목소리는 바쁜 일상 속

에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을 통해 미약하나마 소수를 위한 확성기 역할을 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에어컨 없는 더운 회의실에서, 환풍구 없는 탁한 편집실에서 제작과 아이템 선정, 배경 지식 공부를 위해 귀한 주말을 오롯이 바친 작가진과 AD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서 취재의 묘(妙)를 십분 발휘하여 함께 제작해준 신동식 기자와 매주 서울에서 내려와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준 박혜진 아나운서, 김수민 평론가, 리얼미터 권순장 여론조사분석실장 외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To Be Continued...